

진보가 석권한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 … 장휘국 장만채 당선자는 누구

참교육 향한 굴곡진 인생

광주 장휘국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17년간 초·중·고교 교사를 거친 ‘현장 교육의 전문가’로 통한다. 또 그의 이름 뒤에는 언제나 전교조라는 말이 붙어난다.

교사로서의 평탄한 인생을 포기하고 ‘참교육 실현’이란 명분 아래 전교조 가입 교사로서 해직과 복직을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도 ‘MB특권교육 타파’와 ‘전교조 출신 교육감 후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한 끝에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았다. 너무 억울했고, 올다가 배가 고파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며 학창시절의 아픔을 회상하고 있다.

장 당선자가 교육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지난 때문이다. 당시 엘리트 교육코스인 광주서중과 광주고를 졸업한 장 당선자는 교육대로 진학했다.

이유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동경도 있었지만, 학비가 적고 취직이 가장 빨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 당선자는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중·고교 교사생활을 하면서 입시위주의 횡설적 교육 방식에 염증을 느끼기 시



가난 때문 교사의 길 … 전교조 활동 앞장

강운태 광주시장 당선자와 수창초 동창

를 이끌어 냈다.

장 당선자의 이 같은 ‘참교육’을 향한 굴곡의 교육인생은, 본인이 ‘찢어지게 기난했다’고 표현할 만큼 힘들었던 어린시절의 영향이 컸다.

충북 단양에서 태어나 경찰관으로 재직했던 부친을 따라 전남을 거쳐 광주에 정착한 장 당선자의 초등학교 이후의 삶은 기난

으로 시작해 기난으로 끝이 날 정도로 어려웠다. 그는 수창초 5학년 때 강운태 광주시 장 당선자를 만나 현재까지 친구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 후 부친의 사업실패로 등록금 미납을 밟 먹듯 했고 고교에서는 근로 장학생으로 학비를 면제받기도 했다.

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학창시절 아무 이유없이 스승에게 짚을 맞

작했다.

장 당선자는 “학교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장 형편이 어려운 상위권 학생들에게 진학 여부를 떠나 4년제 대학에 합격만 해 줄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원서비도 없다며 물먹이던 학생들을 보면서 ‘내가 교육자가 아닌 잠시꾼이 됐구나’라는 자괴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자로서의 고뇌는 전교조의 탄생과 함께 장 당선자의 인생을 바꿔놨다.

그는 1989년 교육민주화 운동인 전교조 창립에 뛰어들어 5년간 교단을 떠나기도 했다. 1994년 복직된 이후에는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국장과 지부장을 거쳐 2002년 교육행정을 견지·견제하는 광주시교육위원회에 당선됐다.

하지만, 중학교 진학 후 부친의 사업실패로 등록금 미납을 밟 먹듯 했고 고교에서는 근로 장학생으로 학비를 면제받기도 했다.

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학창시절 아무 이유없이 스승에게 짚을 맞

‘심성구지(心誠求之) 수불종(雖不中) 불

원의(不遠矣)(마음을 다해 얻기 위해 노력했다면 비록 얻지 못해도 그것은 멀리있지 않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장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의 마음을 얻은 만큼 깨끗한 교육행정으로 그 마음을 되찾겠다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장 당선자는 아내 김덕희(58)씨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이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주요 지지세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당선시킨 주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회원들이다. 전교조는 ‘MB교육 심판’을 기자로 내건 장 당선자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전교조의 지지 여론은 교직사회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전달되는 효과를 냈다.

첫 지지선언을 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의 힘도 컸다. 이후 ‘여성학부모 1117인 모임’ ‘광주시민 2010인 모임’ 등의 지

전교조 광주지부 회원들 지지 여론 확산 주도

학계·노동계 등 ‘광주시민 2010인’도 큰 역할

지 선언이 이어졌다.

특히 광주지역 교수학계 642명·법조계 19명·종교계 81명·보건의료 71명·문화예술 183명·장애활동가 52명·체육계 34명·청년학생 890명·노동계 124명·여성 학부모 1117명·시민사회 144명 등 다양

2010년 모임’은 장 당선자를 알리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당선자와 관계자는 “조직·자금·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서 “특히 광주교육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당선의 주역”이라고 말했다.

■ 주요 지지세력

■ 주요 지지세력